

'무엇인지 모를 것' 이 동서양 조형미술 풀어내는 열쇠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 → '제3영기씩 넝쿨모양 영기문'



고구려 벽화의 비밀풀기
마침내 한국미술사학계에서 부르는 이른 바 '인동당초문'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때가 되었다. 내가 인동당초문의 용어가 틀리다는 것을 안 것은, 바로 고구려 사신총의 영기문의 구조를 풀어서 그 조형언어를 읽어냈기 때문이다. 만일 고구려 벽화의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영기문을 해독하지 못했다면, 인류가 수없이 만들어 놓은 '제3영기씩 넝쿨모양 영기문'은 영원히 밝혀낼 수 없었으리라. 인동문이라 알고 있던 바로 사신총의 영기문 표현원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성립한 것이 백제 무령왕릉(武寧王陵) 출토 왕과 왕비의 금제 관(冠) 장식의 영기문이다. 물론 일본 학자들이 인동당초문이라 부르고 한국의 학자들이 그대로 따라 부르므로 그 관의 장식의 본질은 오래 동안 잘못된 용어에 가려져 왔다. 이제 마침내 그 신비한 베일을 벗긴다.

앞서 25회에서 제3영기씩 넝쿨모양 영기문의 전개 원리를 파악한 분은 고구려 사신총 영기문을 금방 풀어낼 수 있으리라. 다시 한 번 25회를 읽어보고 26회를 읽어보기 바란다.

중국 북제와 당의 시대와 거의 같은 시기의 영기문인데, 이 6세기 후반의 고구려 영기문이 훨씬 뛰어난 점은, 그 근간을 이루는 줄기라는 영기문의 곳곳에서 갖가지 영기씩들을 표현했다는 점이다. 바로 그런 영기씩, 즉 생명의 씨들로 하여금 우리는 영기문의 본질, 즉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조형'이 '영기문'임을 깨달았던 것이다.(그림①-1, 그림①-2, 그림①-3)

그런 구체적인 영기문의 표현방법을 보여주었으므로 사신총의 영기문을 통하여 중국이나 더 나아가 서양의 영기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실로 동양과 서양의 미술사학 연구에 전환기를 맞이하는 카타르시스로 즉 '비장한 역전(逆轉)'이다.

조형언어 읽는 지름길 '채색 분석'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에서는 서양의 미술사도 그 기원부터 즉 아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의 미술부터 강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구려의 영기문을 풀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구려 사신총의 영기문은 중요하다. 채색분석한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으니 이 글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 다음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한 왕비의 관의 장식(526년 경 제작)을 살펴보자. 순 금판이므로 금색 한 색이어서 무늬의 구성을 알 수 없다.(그림②-1) 채색분석법으로 파악하면 매우 명료하게 그 전개과정을 알 수 있다.(그림②-1, 그림②-3) 중앙의 연꽃모양 영기꽃에서 사방으로 제3영기씩 영기문이 발산하며, 거기에서 영기화생한 만병(滿瓶)에서도 사방으로 제3영기씩 영기문이 유려한 다양한 형태를 띠며 역시 사방으로 발산한다. 고구려 사신총 벽화보다 더 이른 시기의 제3영기씩 영기문의 전개과정이 매우 역동적이다. 왕비의 머리에서 발산하는 영기를 이렇게 조형화한 것은 놀랍지 아니한가.

그 다음 무령왕의 관의 장식(523년경 만들)을 보면 왕비 것 보다 더 역동적이다.(그림③-1) 역시 그 영기문의 구성원리는 채색분석을 해 보아야 파악할 수 있다.(그림③-2, 그림③-3) 크게 보면 제3영기씩의 조형을 복잡하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채색분석한 것을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다. 글(문자언어)이란 한계가 있어서 조형의 모든 것을 문자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왕의 것이 더욱 역동적인 조형을 띤 것은 왕이 남자이기 때문이고, 왕의 것에 비하면 왕비의 것은 정적(靜的)인 것은 주인공이 여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로소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관의 장식이 나타난 조형적 구성과 상징구조를 자세히 밝힐 수 있으니 그 자손으로서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림 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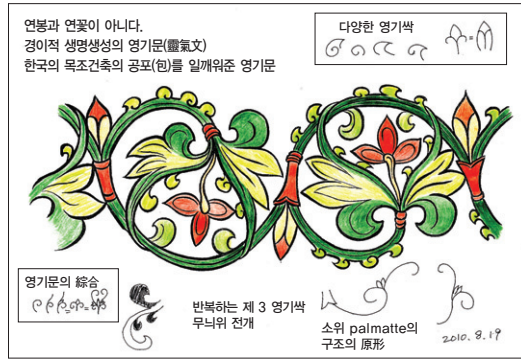


그림 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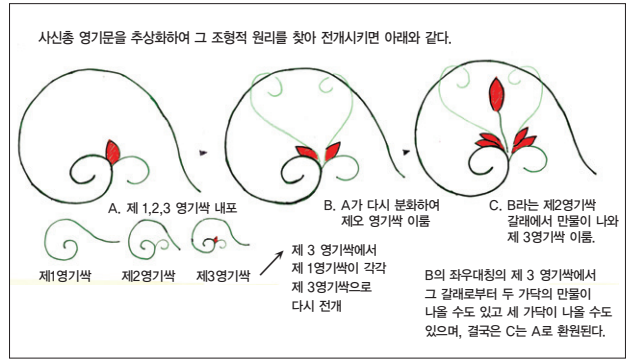


그림 ①-3



그림 ②-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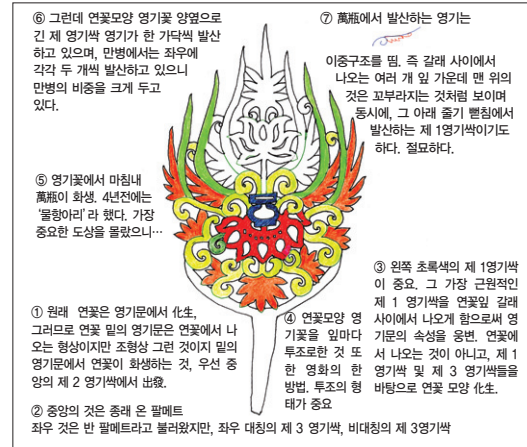


그림 ②-2



그림 ②-3



그림 ③-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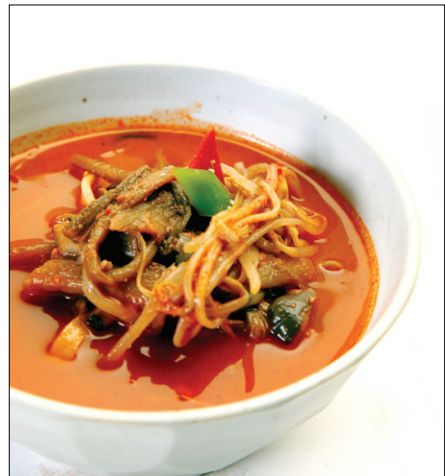
그림 ③-2



그림 ③-3

藥 이 되는 사찰음식

이열치열 '익힌 열무' 로 건강 챙기세요



채개장

△재료(4인 기준)

- 토란대 100g, 느타리버섯 100g, 숙주 200g, 고사리 100g, 무 100g,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 맛국물 6컵(물 7컵, 다시마 1장, 표고버섯 2장, 구기자 1큰술, 대추 2개)
- 고춧가루 1큰술, 고추장 2큰술, 된장 1큰술, 국간장 1큰술, 들기름 2큰술, 들깨가루 4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 ① 삶은 토란대와 고사리는 4cm 정도의 길이로 썰고, 느타리버섯과 숙주나물은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준비한다. 청

홍고추는 어슷썬다.

- ② 냄비에 맛국물 재료와 무를 넣어 국물을 만들고, 무는 익혀낸다.
- ③ 토란대, 고사리, 느타리버섯, 숙주에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국간장, 들기름을 넣어 조물조물 간을 한 후 맛국물과 함께 끓인 후 마지막에 청홍고추, 들깨가루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익힌 열무 산초 김치

△재료(4인 기준)

- 열무 1kg
- 김치 양념 : 국간장 80cc, 고춧가루 7큰술, 홍고추 3개, 배춧 3큰술, 다진 생강 10g, 소금 1작은술, 산초가루 1큰술, 찹쌀



풀 1/2컵

- 찹쌀풀 : 다시마국물 1컵, 찹쌀가루 1/2컵

△만드는 법

- ① 열무는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 3분 정도 살짝 삶은 후 찬물에 헹구 물기를 뺀다.
- ② 다시마 국물에 찹쌀가루를 넣어 찹쌀풀을 쑤다.
- ③ 김치 양념을 골고루 잘 섞은 후 데친 열무를 넣고 버무려 낸다.

감칠맛 나는 열무로 입맛 살려보자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땀을 흘림으로써 우리 몸속의 기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럴 경우 따뜻한 음식으로 기를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이번 주에는 맛국물 에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 뜨끈뜨끈하게 끓여낸 채개장과 특효는 감칠맛이 일품인 열무 산초 김치로 입맛을 되살려 보고자 한다.

채개장은 데친 재료에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충분히 무친 후 끓여야 깊은 맛이 잘 어울린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 함량이 풍부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장기능 개선에 도움을 줘 변비에도 좋으며, 기미나 주근깨를 없애주며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열무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시력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열무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은 혈관 탄력 조절과 항암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 사포닌 성분은 인삼의 주성분인데 몸에 열이 많아 인삼을 복용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인삼 대신 열무를 먹어주면 좋다. 열무를 데치는 것이 번거롭다면 소금에 절였다가 조림을 해도 좋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범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밀납양초를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접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범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범당에서 1인 1등 연꽃 밀납양초로 초 공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 x 29cm)

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 x 29cm)

한복밀납양초 - 4호/3호/2호/1호/밀대전사자/둔대전사자/원기동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악취아광연꽃양초/악취1호예술꽃양초/아광 연꽃초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대덕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